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남상도 목사

박 주 열(전도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따가운 햇볕에 숨이 턱에 차는 여름. 그러나 이 햇볕이 있기에 벼 이삭은 영글어가고 농부는 가을을 꿈꾸고 있다. 흙을 바탕으로 살아 가는 농촌에서는 이 여름이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이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고된 일상은 계속되지만 가슴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충만하다.

광주에서 국도를 따라 장성방향으로 가다보면 흙과 사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 거기에서 한사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남상도 목사를 소개한다. 남 목사가 구체적으로 땀 흘리며 섬기는 곳은 한마음 공동체와 자연학교이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하늘의 소명을 감당하는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자연학교로 발길을 옮겼다.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마령리 538번지에 위치한 자연학교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끌고 다듬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하게 되었다. 자연학교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주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곤충체험, 천연 염색체험, 도예체험, 농촌 체험, 황토 집짓기 등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땀을 흘려 보고, 흙을 만져 보고, 풀 내음을 맡아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기 때문이다. 경험과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진언(眞言)을 듣는 듯 하다.

## 걸어온 길

1957년에 출생한 남상도 목사는 신학교 시절부터 우리의 것, 우리의 신학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었다. 그 후 1984년 장성군 마령리의 백운교회로 부임하여 2004년 7월까지 백운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겼다. 부임 후 처음 2년여의 기간에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며 소임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 목사의 의식과 방향에 일대 전환이 생기게 된다. 거기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여느 때처럼 심방을 다녀오는 길에 교회 옆 배추밭에서 집사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 집사님과 잠시 정담을 나누다 집사님이 배추농사가 잘되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남 목사는 배추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 결과 가을이 되어 배추농사가 풍년을 맞이하였다. 배추농사가 아주 잘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남 목사가 기도한 그 밭의 배추만 잘된 것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배추가 풍작이어서 배추 값이 똥값이 되고 말았다. 그때에 남 목사는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일까? 배추농사를 잘되게 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이 문제일까? 축복을 대언한 자신이 문제일까?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결론과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남 목사는 사회과학 서적을 접하게 되고, 성서에 나타난 예수를 지금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농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교회는 지역과 민족 앞에 정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고, 건전한 문화의 대안을 말해야 한다고 남 목사는 말한다. 그의 말과 땀이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 정의를 말한다

그의 정의 운동은 2002년 친환경 농업교육 자료집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그 글을 옮겨본다.

“1986년 당시 정부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을 통해 한 해 동안 농민들에게 약 600억 원의 수세를 거둬들였다.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빗물, 땅에서 솟아난 물을 막아 놓고 농민들에게 수세를 엄청나게 거둬들였다. 장성군에서는 1년에 약 6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백운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남면에서는 약 2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1년 쌀농사의 1/1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운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농민들이 연대하여 수세 거부투쟁 위원회를 만들어 수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고 농민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어 남면 수세거부대책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경찰의 감시, 관의 압력, 협박, 연행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성한 조직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결과 1989년 관 주도의 농지개량조합이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고 수세는 1/6로 줄어들어 농민들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게 되었다”.

수세 거부운동과 아울러서 이름하여 자갈대 거부운동에도 앞장을 서게 된다. 자갈대란 마을 앞 도로를 놓는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도로에 필요한 자갈 값과 인력을 동원하라는 것이었다. 남 목사와 지역민들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서울의 도로는 당연히 국가에서 인부와 모든 공사비를 당연히 감당하면서 농촌은 자재와 인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국가의 구조적, 행정적 모순에 반기를 들게 되어 자갈대 거부운동의 성과를 보게 된다. 이러한 투쟁을 감행하면서 농민들은 스스로가 힘을 얻어내고, 구조적 모순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백운교회를 새로이 건축할 당시에 지역민들은 신자, 비신자, 부녀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건축현장에서 삽과 망치를 들고 참

여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일손 돕기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 목사는 말한다. 교회는 할 일을 할 때에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 생명을 말한다

남 목사의 생명운동은 구조적 모순과 이기적 욕심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 환경, 가치관 등이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농업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생명농업으로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운동이다.

먹을거리가 농약 및 화학비료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는 현실과 오염된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논리만으로 농업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농약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갈수록 급증하고 암 사망률 역시 사망 원인의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남 목사는 올바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였다. 생명을 살려낸다는 목적의식 속에서 발효퇴비를 공동으로 생산하여 각 농가의 땅을 살려내고 작목을 튼튼히 키우며 농약 대신 효소, 식초 등을 사용하여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은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공동체와 함께 한다

남 목사의 공동체 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장을 해왔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자본사회의 생활이 몸에 배인 현대인들이 공동체적 정신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마음 공동체의 조직은 크게 생산자조직과 소비

자조직 그리고 유통 실무조직으로 나뉜다.

생산자 조직은 생명농법 작목반으로 약 30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모여 생산조정, 유통관리, 생산기술 교육, 소비관리 등 공동생산을 제외하고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조직으로는 광주시내 24개 지역에 걸쳐 약 3,000세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한마음 공동체 조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 첫 번째는 교육을 3-4시간 받아야 하고 (교육담당: 이재권 일꾼, 남상도 목사), 두 번째는 현장방문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세 번째는 공동체 조직에 가입하며 연회비 1만원씩을 내야한다. 네 번째는 출자(1구좌에 10,000원씩 5구좌 이상)를 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공급차량과 시간을 맞추어 지정된 장소에 나와야 한다. 많은 부분에서 까다롭지만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크다.

유통 실무조직에는 실무자들이 농민들의 일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양식을 탈피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추수감사제 모습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 실무자들 대부분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실무자들은 보람과 긍지가 대단하다고 한다.

## 문화를 말한다

남 목사는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가장 좋은 문화라는 생각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와 놀이를 구상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문화활동은 추수감사제이다. 기존의 교회 추수감사제를 탈피하여 전 지역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제로 정착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마을대항 놀이행사(줄다리기, 마라톤, 풍물, 널뛰기, 노래자랑)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다양한 계층들에게 풍물을 전수해 상당수의 지역 농민들이 풍물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예배와 전통문화와의 만남을 기획하여 예배시간에 장구, 북, 징 등을 사용하고 민요가락에 맞춘 찬송가를 도입하여 기독교 토착화 작업을 하고 있다.

## 지금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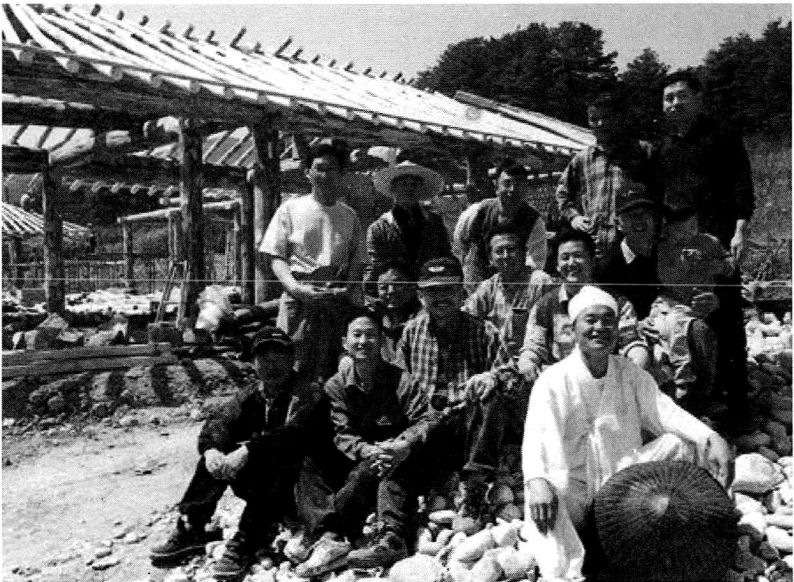
남상도 목사는 지난 6월 말로 그동안 담임목사로 섬겨오던 백운교회를 사임하였다. 이유는 후진들의 활발한 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 목사는 장로나 집사 등 직분자들도 60세가 되면 은퇴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20년 동안 시무했던 자리를 벗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남 목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목회 철학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는 지역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이나 시스템 등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었다고 한다. 백운교회에는 새벽예배와 심방이 없다. 이유는 농촌에서 새벽이면 모두가 일하는 시간이며 그 일이 바로 생명

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하고 땀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을 실천하자는 취지이다. 심방 또한 신자들과의 관계만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지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여 지역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다.

현재 남 목사가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농업교육장과 자연학교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백운교회와는 다소 떨어져 있다. 환경농업교육장과 자연학교는 지역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과 연대하고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다. 환경농업교육장은 한국 농촌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농업교육장을 농민교육기관만이 아닌 도시 소비자들과 청소년들에게 농촌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자연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자연학교에는 화학염료가 아닌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연염료들을 사용하여 염색하는 천연염색 공간과 손으로 흙을 빚어 만



황토집을 지으며 배우는 일꾼들(왼쪽 상단이 남목사)

드는 도예체험 공간, 여러 가지 곤충들과 나비들을 전시해놓은 전시 공간과 전통생활용품들이 있어서 소비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을 돕고 있다. 그리고 유기농업을 하는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 토종동물들을 모아놓은 공간,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손으로 잡아보는 공간, 창포와 연꽃을 심어놓은 저수지, 주말농장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0년 4월 자연학교 내에 생태유치원을 개원해서 지역의 아이들과 광주에서 자녀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러모아 교육하고 있다.

현재 환경농업교육장과 자연학교는 약 10,000평의 대지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열리고 있으며, 귀농학교, 농업 후계인 교육, 정농회를 비롯한 친환경 농업단체 교육, 천연 염색학교, 황토 집 짓기 학교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설된 학교들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에 뜻 있는 사람들을 묶어내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지역 농민들이 학교에 참여할 기회들을 넓혀가고 있다.

## 내일을 꿈꾼다

필자는 남 목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일하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자신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너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2천년 전 예수와 많이 닮은 모습이다. 나와 네가 하나로 묶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라는 '지금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로 여겨진다. 이런 뜨거운 사람 사랑에 몰두하여 남 목사는 그만의 대안을 만들어 놓았다.

먼저 농촌지역에 있어서 생산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 여기서 생겨나는 힘으로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력을 장악하고 사회 문화적 기반을 생산문화 중심으로 세워 나갈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경제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농



민 스스로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권을 농민 중심으로 장악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성을 중시하여 교육(공부방), 문화(전통문화), 언론(지역신문)등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이 인정되도록 하고 섬김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1차 생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계획이며 대안이다.

### 남상도 목사를 생각하며

남 목사는 시대가 요구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고 아주 사소한 일상사로부터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나누며 지역민을 형제로, 자매로, 모친으로 모셔들이는 사람이다. 이론과 탁상 공론으로 한숨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을 정면으로 대응한 사람이다. 걸어온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론 험박과 손가락질이 있었고 혼자만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낮추는 일, 서로가 어울리는 사회적 실천을 삶의 화두로 삼아왔다. 이것이 남상도 목사를 정의, 생명, 공동체 운동가로 살아오게 한 것이다. 선인들은 “하늘 땅은 나와 뿌리가 같고(天地與我同根),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萬物與我一體)”라고 했다. 자신의 자리에 세상의 중심을 만들고 지역과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그의 모습을 두고 한 말인가 싶다. 곁에서 보고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할까. 남 목사는 스스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하여 그를 소개하는 필자의 가슴에도 그가 지닌 하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전해져 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야”는 말이 그를 보면 가슴으로 알 것 같다. ●